

통원(通園) 유만주(兪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一考)

김하라*

1. 서론
2. 사대부가 남녀의 소통과 한글 글쓰기
3. 사대부가 여성의 한글문헌 향유 양상
4. 사대부 남성의 어문생활과 유만주의 한글 사용
5. 결론

<국문요약>

18세기 후반, 서울에 거주한 사대부 남성인 유만주(兪晩柱)는 자신의 가문 내 여성들과 문자를 매개로 한 소통을 일생 지속해 왔으며, 그 내용을 자신의 일기 『흙영』에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무렵과 그 이전에 할머니가 쓴 한글 일기를 읽으며 집안의 과거사를 돌아보았다. 그는 가문 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편지를 주고받은바 그 내용의 일부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일기에 기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장모와 자주 교류하며 자신의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장모가 한글로 쓴 아내의 행장을 받아 와 아버지께 보였다. 이런 사실들은 여성이 한글로 문자행위를 하는 것이 사대부가 내의 성별간 소통에 유용한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유만주는 그 부유한 중형제인 유준주(兪駿柱) 가의 여성들이 소설과 여행록 등 다양한 한글문헌을 읽고 있는 장면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18세기 중후반 서울의 부유한 사대부가 여성들이 향유하던 문

* 서울대학교 강사

자문화의 전형적인 양상이 포착된다. 한편 유만주가 부유한 종질녀 기계 유씨와 가난한 내종질녀 안동 김씨 모두와 편지를 주고받고, 특히 이들에게 지필묵을 선물하는 모습에서, 서울에 사는 일반적인 사대부가 여성들이 빈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문자 교양을 생활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하나의 계층에서, 빈부와 경향(京鄕)에 크게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문자문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은 유만주가 쓴 야담에 보이는, 어떤 극빈층 재지양반의 아내가 한글소설을 읽는 장면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한글의 주된 사용자인 여성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유만주가 자신의 일기에서 한글을 구사하고 있는 것의 한 배경을 이룬다. 이러한 소통과 교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당시의 사대부 남성들이 한글을 해득하고 구사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당시 사대부계층의 정점에 있었던 정조(正祖)가 편지에 한글을 섞어 구사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구어를 반영한 즉시적 표현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들의 글쓰기는 한글 사용이 편만해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의 구어 현실을 반영하여 조선식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중, ‘머흠머흠과 같이 끝내 번역하기 어려운 한글 고유어를 한문 사이에 남겨두고 있는 유만주의 면모에서, 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닌 문인으로서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핵심어 : 유만주, 『흠영』, 한글, 사대부, 사대부가 여성, 소통, 번역

1. 서론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흠영』(欽英)은 조선 남성 사대부의 문어(文語)인 한문으로 기록된 일기이다. 그러나 이 일기는 구어로서의 조선어의 사용과 그 문자화라는 견지에서 보았을 때 여타의 일반적인 사대부 문인의 일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박희병 교수는 『흠영』의 이러한 면

모와 관련하여, “소설을 보는 눈에 관한 한, 그리고 한글에 대한 입장에 관한 한, 통원(通園: 유만주의 호·인용자)은 연암(燕巖)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연암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¹⁾고 한 바 있다. 당시, 여성이 주로 향유하는 주변적인 장르로 간주되던 한글소설과 그것을 구성하는 조선의 언어문자에 대한 인식에서, 『흙영』의 저자 유만주가 당대 최고의 문인인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만주가 한글소설의 애독자로서 작품 자체에 대한 비평은 물론 여성을 중심으로 한글소설이 향유되는 사회상과 관련한 의미 있는 언급을 남긴 데 반해, 연암 박지원은 한글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연암은 자신의 글 「족손 홍수(弘壽)에게 답한 편지」에서 ‘누이’의 편지에 답장을 해 주지 못하는 사정을 말하며 “평생 언문 글자는 하나도 알지 못하여 50년 해로한 아내에게도 편지 한 자 써 주지 못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²⁾ 이 글은 한글을 구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가족 내 여성들과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가장의 한 면모를 보여 주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연암 박지원의 언어생활과 그로 인한 관계의 형성은 한글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암의 경우와 달리, 유만주의 언어생활에서 문자로서의 한글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가족 내 여성들과의 문자를 매개로 한 소통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 『흙영』에서는 질녀(姪女)가 한글소설이나 한글로 번역된 연행록(燕行錄) 등을 낭독하는 것을 수시로 경청하고 숙모와 질녀, 형수 등과 편지를 주고받는 유만주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유만주는 자신의 일기 가운데 한글을 간혹 섞어 쓰고 있기도 하는데, 한글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한문 일기에 한글을 섞어 쓰고 있다는 것

1) 박희병, 『『흙영』의 성격과 내용』, 『흙영』1,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33면.

2) “누이의 편지는 비록 위로가 되긴 하나, 내행(內行: 부녀자들이 길을 떠나는 것)을 모두 보내고 홀로 빈 관아를 지키고 있는지라 곁에 편지를 대신 읽어주고 답장을 써 줄 이가 없으니 어찌겠느냐. 내 평생에 언문 글자는 하나도 알지 못하여 50년 해로한 아내에게도 끝내 편지 한 자 써 주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는 한으로 남았을 따름이다. 이런 사정은 들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이를 위해 전해주면 어떻겠느냐?(妹書雖慰, 而盡送內行, 獨守空衙, 傍無替讀倩寫者, 奈何? 吾之平生, 不識一箇諺字, 五十年偕老, 竟無一字相寄, 至今爲遺恨耳. 此事想有聞知, 爲之傳及如何? 박지원, 『燕巖集』卷3 「答族孫弘壽書」)” 번역은 신호열·김명호, 「족손 홍수에게 답함」(『국역 연암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5, 422면)을 참조하여 약간 고침.

자체가 조선어에 대한 저자의 특정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여성이 한글을 사용하여 읽고 쓰기를 한다는 사회적 현상을 편견 없이 기록하고 또 다양한 한글 문헌의 독자가 되었던 유만주의 면모가, 『흙영』에 한글 표기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간주하고, 그가 가계 내의 여성과 더불어 조선의 구어와 한글을 매개로 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18세기에 여성을 중심으로 한글이 사용되던 구체적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와 같은 문자생활에 사대부 남성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만주와 같은 사대부 지식인이 자신의 일기에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사대부가 남녀의 소통과 한글 글쓰기

유만주는 할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와 장모, 숙모, 아내, 질녀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 여성들과의 관계망을 자신의 일기에 촘촘히 재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집안 여성들의 문자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는 그가 집안 여성들이 한글로 직접 쓴 글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만주는 문자로서 한글을 가리킬 때 언문(諺文)과 내문(內文)이라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언문’으로, 그 사용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내문’으로 한글을 지칭했다. 따라서 자기 집안의 여성들이 쓰고 있는 한글은 대체로 내문이라 칭했다.

유만주의 할머니 창녕 성씨(昌寧成氏, ?~1758)는 그가 만 3세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의 기억에 남아 있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이 몇 년 동안 쓴 한글 일기는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손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쓰신 갑술(1754), 을해(1755), 병자(1756) 3년간의 내문(內文) 역기(曆記)를 우연히 보다. 나의 사주인 을해년 기묘월 무신일 병진시가 표시된 것을 찾아보았다. 무신일은 사일(社日)이고 오행으로는 토(土)에 속하며 28수 가운데서는 허성(虛星)에 해당된다. 지금에야 생각해 보면 이 일시(日時: 태어난 일시. 사주)가 되레 번뇌인 것이니, 하나도 격에 맞는 게 없고 하나도 마음과 같은 게 없다. 재능도 지혜도 없고, 성상(星象: 운명)도 없다.

이어서 갑자(1744), 을축(1745), 병인(1746), 정묘(1747) 4년간의 역기를 보았는데 이 또한 할머니가 내문으로 쓰신 것이다. 상상해보면 인생은 다만 이와 같을 따름이다. 무엇이 오래고 무엇이 잠시이며 무엇이 영화롭고 무엇이 시들어가는 것인가. 그저 현재일 뿐이니 지리한 순간이 있고 참고 견뎌야 순간이 있는데, 이미 지나고 보면 아득한 과거가 되어 결국 선천(先天)과 마찬가지로 되어 버리니 다만 생각하고 기억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1786.2.29³⁾

유만주는 할머니 영인(令人) 창녕 성씨가 한글로 쓴 역기(曆記)를 우연히 읽다가 할머니가 손자인 자신의 사주를 기록해 둔 것을 발견하였다. 역기란 책력(冊曆)의 해당 날짜의 공란에 기록하는 메모 형식의 일기라 할 수 있는데, 창녕 성씨는 첫 손자가 출생한 시각인 음력 1755년 2월 4일 오전 7~9시를 해당 날짜의 책력에 적어 둔 것이다. 31년 후 이 기록을 펼쳐보던 유만주는 자신의 사주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불우함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언급을 했다. 한편 할머니가 남겨 둔 일기 가운데는 유만주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쓴 것도 있었다.⁴⁾ 이를 읽은 유만주의

3) ○適閱先祖妣令人內文甲乙丙三歲曆記 考定己造乙亥己卯戊申丙辰, 而戊申係社日, 五行屬土, 二十八宿屬虛. 自今想之, 是日時, 却也煩惱. 無一合格, 亡一如意, 無才無智, 無星無象. 續閱甲乙丙丁子丑寅卯四歲曆記, 亦先令人內文也. 想像人生也止如此, 何久何暫, 何榮何枯? 止是見在, 有支離者, 有堪忍者, 逮其既過也, 則已往茫然, 遂係先天, 直不思憶矣.(1786.2.29/6-168)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인용문이 『흙영』 1786년 2월 29일 조에 해당하며 영인본 6책 168면에 나온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여기 인용된 18세기 문헌에 언급된 날짜는 모두 음력임을 밝혀 둔다. 이하 같다.

4) 1744년부터 1747년까지에 해당하는 일기를 쓴 이 시기는 이 가문에서는 대체로 유만주의 조부 세대가 어려움을 겪은 때로 기억되고 있는데, 특히 뒤의 2년 동안 창녕 성씨의 시동생인 유언상(俞彦鎰, 1702~1746)과 남편 유언일(俞彦鎰, 1697~1747)이 연달아 사망하기도 했다. 창녕 성씨의 일기는 이러한 가내사를 적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상은 ‘시간은 다만 현재의 연속일 따름으로, 지나가버리면 추억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인생이 허무하다는 데 가깝다.

이와 같은 유만주의 감상과는 별도로, 위의 인용문은 18세기 조선에서는 사대부가의 여성이 책력에다 한글로 일기를 쓰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 어떤 가문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기를 잘 보관하여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한글로 쓰인 이 일기를 사대부 남성인 유만주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 등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유만주의 어머니 순흥 안씨(順興安氏, 1734~1821)는 남편이 군위(軍威)와 해주(海州) 등지에 지방관으로 부임했을 때 동행해 있으면서 서울집에 남아 있는 아들에게 간혹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애초 한글로 쓰였을 이 편지의 내용을 유만주는 한문으로 번역하여 자신의 일기에 적고 있다.

○이번 달 11일자 어머니 편지를 받다. 석정(石亭)에서 노니셨는데 평생 처음으로 즐거웠다 하셨고 아전 훈(勳)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셨다. — 1784.6.20⁵⁾

○배지(陪持)⁶⁾편에 어머니 편지가 왔는데, 낙동(駱洞: 서울 충무로 근방) 집 운운한 것은 본심이 아니라 본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것이다. —1784.6.30⁷⁾

○배교(陪校)⁸⁾가 와서 이번 달 24일자 아서(衙書: 관아 편지)를 받다. 묵기(墨記)를 찾아오라 하셨다. 어머니 편지에서는 과교(果郊: 果川)에 돈을 보내고 계집종을 데려올 것을 말씀하셨다. —1784.8.26⁹⁾

위의 인용문은 모두 유만주의 모친 순흥 안씨가 남편의 임지인 해주에 머무는 동안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인용문에서

5) ○承今十一日慈書。教石亭之遊，快樂爲平生初。聞吏勳病死。(1784.6.20/5-256)

6) 배지(陪持): 말을 타고 다니며 급한 문서나 진상물을 서울로 나르는 일. 또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

7) ○陪持便慈簡。以駱舍云，非本色，固料庭意。(1784.6.30/5-268)

8) 배교(陪校): 배지와 유사하게,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물건을 전하고 연락하는 임무를 맡은 심부름꾼으로 보임.

9) ○陪校至，承今廿四日衙書，教推墨記，慈簡果郊送文取婢事。(1784.8.26/5-315)

처럼 일상에서의 감회를 표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에서 아버지 대신 집안일을 돌보고 있을 아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내용이다. 당시 유만주는 살고 있던 창동(倉洞: 서울 남창동 근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내심 명동(明洞: 서울 명동 근방)의 한 집을 점찍어 둔 터였다. 이에 대해 부친 유한준(俞漢雋)을 위시한 다른 가족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며, 낙동 운운한 것은 명동이 아니라 이곳에 집을 얻으면 하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의 편지는 과천에서 어린 여자 종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유한준이 해주 판관으로 부임한 이후 집안 형편이 좋아져서, 부릴 만한 여자 종을 하나 더 두기로 한 데 대해 순흥 안씨가 자신의 의견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순흥 안씨는 이와 같이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문장력 외에, 상당한 문자적 교양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땅하다. 무릇 독서라는 것은 장차 그로써 수신(修身)하고 치용(致用)하려는 수단이다. 수신과 치용은 별도로 한 가지의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또 별도로 독서 한 가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독서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수신과 치용의 보람이 없다면 또한 어찌 독서한다고 일컬을 수 있으랴. 대개 독서에는 또한 허다한 종류가 있으니 가을 물처럼 환히 마음을 헤아리는 독서는 본디 논할 것도 없거니와 그 외의 것 또한 저마다 묘한 이치가 있다. 어찌 공연한 것이랴. —1785.11.27¹¹⁾

○아침에 상위(上闈)에서 어머니 뵈고 시헌첩(時憲帖)을 보았으며 모여서 통통한 꿩고기가 들어간 만둣국을 먹다. (….) ○밤에 상위에서 짐짓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설가(說家)의 여러 기문(奇聞)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쓴 것이랍니다.” —1786.11.4¹²⁾

10) 『흥영』에서 과교(果郊)는 순흥 안씨의 친정을 지칭하는바, 어머니의 의견은 외가에서 쓸 만한 여자 종을 사 오라는 것이다.

11) ○慈訓當矣. 夫讀書者, 將以修身而致用也, 非修身致用另有一件工夫, 而其外又別有讀書一事也. 號爲讀書, 而苟無修身致用之效, 則亦安稱讀書爲哉? 蓋讀書亦有許多般, 秋水揣摩, 固無論爾. 其他亦自有理妙, 豈徒然哉?(1785.11.27/6-81)

12) ○朝拜慈上闈, 見時憲帖, 會餉湯飩疏趾之膳. (….) ○夜上闈故說, ‘說家諸奇聞, 爲致慈歡.’(1786.11.4/6-410)

첫째 인용문에 나타난바, 혼자만의 독서로 접철된 아들의 삶에 대한 어머니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유만주의 태도에서, 그 모친 순흥 안씨가 지닌 교양의 정도가 짐작된다. 둘째 인용문은 유만주가 설가의 기문 즉 소설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린 내용을 적은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응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말의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한글로 소설을 썼다’는 『구운몽』과 『창선감의록』 등의 창작 동기를 연상하게 한다.¹³⁾ 지식인인 아들의 문자생활에 간여하여 충고를 하고 아들에게 소설 이야기를 듣는 데서 순흥 안씨 역시 상당한 문자 교양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만주와 그 장모 달성 서씨(達城徐氏, 1730~1815)의 관계 또한 주목된다. 달성 서씨는 유만주의 전처 해주 오씨(海州吳氏, 1752~1773)의 모친으로, 『흙영』에 기록된 달성 서씨와의 빈번한 만남은 모두 아내가 죽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정작 일기 안에서 살아 있는 후처 반남 박씨(潘南朴氏, ?~1833)의 모친 영일 정씨(迎日鄭氏, 1732~1809)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대비는 두 아내에 대한 유만주의 공평치 못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유만주는 죽은 전처를 이상화하는 반면, 함께 살고 있는 후처에 대해서는 평생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이러한 차별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문자적 교양을 가졌는지의 여부였다. 전처 해주 오씨의 친정은 서울의 명문가로 꼽히며, 잘 알려진 관료문인인 오재순(吳載純, 1727~1792), 오재소(吳載紹, 1729~1811) 등이 그의 족속(族叔)이었다. 이에 비해 후처 반남 박씨의 친정은 시골인 여주(驪州)인 데다 현달했다고 할 만한 가문의 구성원도 드물었다. 그리고 두 아내는 각각 자신의 성장배경에 입각한 교양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흙영』에서, 죽은 전처의 모친에 대한 언급은 교동(校洞: 종로구 낙원동 일대)을 방문하여 서유인(徐孺人: 장모 달성 서씨를 지칭함-인용자)을 뵈었다는 짧은 구절의 반복으

13) 한편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유만주의 변명 내지는 자기 정당화로 읽힐 여지가 있는데, 유만주는 중국 소설의 애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여성들이 읽는 한글 소설도 적지 않게 접하고 있었던바 소설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자신이 『서불입해기』(徐市入海記)와 같은 소설을 쓸 구상을 하고 있었으며, 허구를 만든다는 자의식을 지니고 우언(寓言)이라는 의미부여를 하며 소설 비슷한 것을 계속 써 나가던 중이었다. 요컨대 그의 말은 소설에 대한 취향과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모친의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로만 나타나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한준이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 쓴 다음의 글을 참조하면 그 대화의 한 장면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해주 오씨의 인용자)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나는 만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아내의 현숙한 점을 끝내 다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릴 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내가 장모 서씨 부인에게 가서 여쭙어 보거라.”

서씨 부인은 언문으로 딸의 행장을 써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 딸은 날 때부터 미목(眉目)이 단정하고 예뻐다. 부모 곁에 있으며 한 번도 꾸지람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여러 아우들과 사이좋게 지내어 뭐라도 생기면 작은 것도 꼭 나눴다. 남이 곤궁한 걸 보면 마음으로 슬퍼하여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도 아까운 기색 하나 없었다. 남이 잘못된 일을 입에 올린 적 없으며, 남의 잘못에 대해 들으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져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언젠가는 아우들과 놀다가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선 꾸지람 한 번 앓으시고, 어머니께선 회초리 한 번 들지 않으시니 제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아이의 효성으로 따르며 욕심 없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대체로 이런 부류였다.”¹⁴⁾

아내가 죽은 후 처가에 가서 아내의 어릴 적 일들을 여쭙어보고 장모가 쓴 글을 받아오는 유만주의 모습이 위의 글 안에 들어 있다. 어머니가 쓴 글에 나타난 해주 오씨의 성격 내지는 형상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터이나, 여기서는 유만주의 장모 달성 서씨가 한글로 딸의 행장을 쓰고 그것을 유만주와 그 부친 유한준이 읽고 다시 한문으로 번역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한다. 달성 서씨와 같은 사대부가의 여성이

14) “既葬，余謂晩柱曰：“汝妻之賢，終不可沒。然幼時事靡得以詳焉，汝其往質之汝聘母徐夫人。”徐夫人以諺狀其行來，其狀曰：“女生而眉目端婉，在父母側，未嘗一煩其呵叱，友諸弟，有所得，雖小必分，見人窮之，意哀之，嘗脫衣與無衣者無慙色，口絕人過失，聞人過失，必駢然自顧其躬，嘗與弟遊戲，意忽不樂，問其故，曰：‘父不一譙訶，母不一撻撻，吾雖欲爲善人得乎？’其孝順無慾，持身秉心，多此類。”(俞漢雋, 『子婦孺人吳氏墓誌銘 并序 甲午』, 『自著』 卷24) 번역은 이경하, 『18세기 여성 생활사 자료집』 2(보고사, 2010)를 참조하여 조금 바꾸었음.

딸의 일생을 담은 비교적 장편의 산문을 한글로 쓸 정도의 문자적 교양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유한준·유만주와 같이 한문을 주로 구사하는 사대부 남성이 가문 내의 여성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 한글로 된 기록까지 참조하여 좀 더 다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정황 등이 여기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한준이 달성 서씨의 글을 번역하여 인용하는 데서, 사대부 남성이 한글을 해독한다는 전제 하에 한글이 남성과 여성 간의 소통의 매개가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유만주가 적고 있는 가족 내 여성들의 한글 글쓰기는 일기와 편지, 행장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글쓰기는 필요에서 출발한 실용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성 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이 각각의 글쓰기 장르와 개별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도 이미 적지 않다.¹⁵⁾ 그렇다면 가계 내 여성의 한글 글쓰기를 보고하고 있는 유만주의 일기는 이미 나온 성과에 하나의 용례를 보태는 것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필자는 여기서 여성이 한글로 쓴 글을 신중히 읽고 그것을 자신의 저술에 생생히 재현하는 한문 사용자이자 사대부 남성으로서 유만주의 형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만주의 일기는 여성이 남긴 한글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치중하여 간과했던 당연한 사실, 즉 이 한글 문헌이 독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쓰였고, 그 독자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한문을 주된 문자로 사용하던 사대부 남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하게 한다. ‘내외(內外)’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대부가 내의 성별구분이란 아주 명확해 보인다. 성별에 따라 거주하는 공간도 구획되어 있고 담당하는 일도 다르며 사용하는 문자조차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가족으로서 맺고 있는 관계는 전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복잡

15) 여성의 어문생활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이경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다시 보는 고소설사』, 보고사, 2010. 여성의 일기에 대해서는 남평 조씨의 『병자일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편이다. 또한 편지에 관해서는 여성들이 쓴 것을 포함하여 널리 ‘언간(諺簡)’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료에 대한 영인과 주석작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다단한 그물망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여성이 쓴 한글 문헌의 한 독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재현한 유만주의 일기는, 사대부가 여성의 글쓰기가 성별간 소통을 위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그러한 소통의 대단히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3. 사대부가 여성의 한글문헌 향유 양상

(1) 서울 상층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

유만주는 모친과 장모 외에 숙모뻘이 되는 여성들과 잦은 교류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가 종숙모 광산 김씨(光山金氏, ?~1788)다. 유만주는 종형제 가운데서도 광산 김씨의 외아들인 유준주(俞駿柱, 1746~1793)와 가깝게 지내 그의 집을 자주 방문했는데, 이곳은 유만주의 집인 창동(倉洞: 남창동)을 기준으로 동쪽인 낙동(駱洞: 충무로 근방)에 있었으므로 일기에서는 주로 동택(東垞)이라 범칭했다.¹⁶⁾ 그리고 이 집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영역을 가리킬 때는 동합(東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동합의 주인이 바로 유준주의 모친 광산 김씨다.¹⁷⁾ 동합에는 광산 김씨 외에도 유준주의 아내인 한산 이씨(韓山李氏, ?~1807)와, 지금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모친으로 더 잘 알려진 유준주의 외동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내며 비교적 현달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부친 유한소(俞漢蕭, 1718~1769)를 대신하여 유준주가 이끌어가고 있던 이 집은, 유준주가 일찍부터 관력(官歷)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 월성위(月城尉)로

16) 같은 장소를 가리키면서도 종형제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유준주의 집임을 강조할 때는 상지상(上之上), 유준주의 서재를 칭할 때는 운수(雲水) 등으로 일컫기도 했다.

17) 반면 유만주의 집에서 서쪽에 있는 종형 유산주(俞山柱, 1747~1788)의 집은 수서(水西) 혹은 서택(西垞)이라 불렸으며 이 집의 안주인이자 유산주의 모친인 또다른 종숙모 인동 장씨(仁同張氏, ?~1787)가 거주하는 곳은 서합(西閤)이라 칭하였다.

지칭되는 부마 김한신(金漢薰, 1720~1758)의 후손가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 등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편이었다. 유만주는 이 집을 방문하여 금실로 짠 노리개리든가 유행하는 스란치마 같은 의상, 이 집의 사돈인 월성위 집안에서 보내 온 호화로운 세폐(歲幣) 등을 구경하며 서울의 부유한 양반가의 호화로운 의식주 문화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다. 『흙영』에 그려진 동합의 여성 3대는 비교적 풍요로운 문자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물질적 기반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도 17세기 이후 서울의 부유한 사대부가 여성들 사이에서 읽을거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한글소설을 필사하고 읽는 유행이 번져 나갔다고 보고되고 있는바,¹⁸⁾ 유만주의 종백(從伯: 從兄)인 유준주 가의 여성들 역시 그러한 문화 현상을 실증하는 하나의 예에 해당한다 하겠다.

유만주가 동합의 안주인인 종숙모 광산 김씨와 나눈 대화 가운데는 특히 당시 사대부가 여성의 소설 향유와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이 있다.

○동합에서 우리나라 시속(時俗)의 연의(演義)에 대해 정정(訂定)하다. 『옥린』(玉麟)이 『석행』(石行)보다 낮고, 『석행』은 『완월』(玩月)보다 낮다. — 1784.1.10¹⁹⁾

이 인용문에 언급된 『옥린』은 『옥린몽』(玉麟夢), 『완월』은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으로 보이나 『석행』이 무엇인지는 미상이다. 유만주가 이 세 소설을 모두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은 그보다는 광산 김씨가 스스로 읽은 한글장편소설에 대해 논평한 말로 보는 것이 더 사리에 가까워 보인다.

이 말 외에도 동합이 한글로 된 읽을거리로 충만해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대체로 광산 김씨의 손녀, 즉 당시 10대였던 추사 김정희의 모친을 통해 나타난다.²⁰⁾ 추사 김정희 관련 기록에서

18)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51~80면.

19) ○東閣訂東俗演義. 『玉麟』優『石行』, 『石行』優『玩月』. 石園見朝紙, 金煜爲右揆. (1784.1.10/5-119~120)

기계 유씨(杞溪俞氏, 1766~1801)로만 지칭되고 있는 유준주의 외동딸을 유만주는 자신의 일기에서 종백녀(從伯女) 혹은 종백애(從伯愛)라 부르며 문예 취향이 있는 젊은 여성으로 그려냈다. 여기 기록된 바에 따르자면 이 여성은 1780년 9월 16일에 초례(醮禮)를 치른 것으로 나타나지만²¹⁾ 이후로도 친정인 동합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다.²²⁾

유만주는 종질녀(從姪女)인 기계 유씨에게 편지를 써서 떡과 붓을 선물한 적이 있고²³⁾ 이 여성은 바로 다음날 답장을 보내어 자신이 가진 떡 가운데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²⁴⁾ 이들이 주고 받은 편지가 떡과 붓의 수수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사대부가 내 남성과 여성 간에 공유된 문자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만주는 편지를 통해 종질녀인 기계 유씨와 교류를 갖기도 했으

20) 『흥영』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지목되지 않고 ‘東閣, ‘從伯愛=從伯女’ 등으로만 지칭되던 여성들의 신원을 확정하게 한 증거는 흥미롭게도 추사 김정희의 출생이라는 사건이다. 『흥영』 1786년 5월 18일조에 따르면 종백애로 지칭되는 유준주의 외동딸은 출산을 앞두고 친정인 낙동(駱洞)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유만주는 중형제인 유평주(俞平柱)와 함께 이 곳을 방문했다. 그는 며칠 뒤인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다시 종백애를 방문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1786년 6월 4일조에는 ‘어젯밤 해시(亥時) 정각에 종백애가 남자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상지상(上之上: 김정희의 외조부인 유준주의 집)에 가서 축하했다.’고 적었다. 이 기록에 따르자면 아기가 태어난 날짜와 시각은 1786년 6월 3일 밤 10시인데, 추사 김정희의 출생일 역시 1786년 6월 3일로 알려져 있다. 유만주는 아기가 태어나고 삼칠일이 지난 1786년 6월 26일에 다시 상지상을 방문하여 종백애의 신생아를 보았다고 한바, 이 때 갓난아기인 추사 김정희와 그 모친은 외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흥영』에 나타난 유준주의 딸 기계 유씨의 동선을 감안한다면 추사 김정희의 출생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홍준 교수의 『완당평전』 등 김정희의 생애를 다룬 대부분의 저작에서는 그 출생지를 충남 예산의 경주 김씨 종택인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유홍준, 『완당평전』 1, 학교재, 2002. 27면 및 37면) 그러나 『흥영』의 기록을 따르자면 추사는 외가인 서울의 낙동 가까이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뒤에는 한동안 외가에 머물렀던 것이 확실하므로 그 출생지에 대한 기존의 설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21) ○觀從伯女醮禮.(1780.9.16/3-211)

22) 첫아들인 김정희를 낳은 시기가 1786년 6월 3일이므로 그 사이에 친정에 오래 머물면서 남편 김노경(金魯敬, 1766~1837)과 떨어져 지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친정을 자주 방문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3) ○종백애에게 편지와 함께 운림묵 두 개와 해주의 붓 한 자루를 주었다.(書副從伯愛雲林二女及西毫一枝.1785.1.7/5-432)

24) ○종백애가 편지를 써서 용묵 한 개를 돌려보내고는 작은 먹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從伯愛書還龍墨一笏, 要易小玄.1785.1.8/5-432)

나, 더 많은 경우 이 종질녀를 통해 한글로 된 읽을거리더 정확히 말하자면 들을거리-를 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기계 유씨는 16세이던 1781년 6월 12일에 『흥양정씨차혼기』(興陽鄭氏借魂記)라는 한글소설을 소리내어 읽었는데 유만주는 이 때 그 자리에 있으며 이 소설을 들었다.²⁵⁾ 이후 기계 유씨는 첫아들을 낳은 뒤에 한동안 친정에 머물러 있었던 듯한데,²⁶⁾ 유만주는 종질녀의 침종(添腫: 산후 부기인 듯함)을 문병하러 왔다가도 『수제신설』(壽第新說)이라는 장회체 소설로 추정되는 어떤 읽을거리의 1회를 들고 갔다고 적고 있다.²⁷⁾

그리고 유만주가 종질녀 기계 유씨의 낭독으로 접한 한글 문헌은 소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784년 11월 10일의 기록을 보면 허봉(許篈, 1551~1588)과 고경명(高敬命, 1533~1592) 등이 편집한 만력(萬曆) 임오년(1582) 『원접일록』(遠接日錄)의 한글 번역을 종백녀가 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⁸⁾ 만력 임오년의 원접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선조 15년(1582) 9월 7일과 13일 조에 기재되어 있는바, 명나라의 조사(詔使) 황홍헌(黃洪憲) 등이 황태자 탄생 축하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왔을 때 원접사(遠接使) 이이(李珣)와 종사관(從事官) 허봉 및 고경명이 의주(義州)에서 그 일행을 맞이했다 하여 해당 사실이 밝혀져 있으나, 『원접일록』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원접사행(遠接使行)의 노정과 그 기간 동안의 사건 등을 날마다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될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원접사와 그 종사관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가 중국 사신과 응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문장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원접사행의 종사관이며 그 여정의 결과물을 책

25) ○聽從伯女讀內文『興陽鄭氏借魂記』.(1781.6.12/3-463)

26) 1786년 9월 4일의 기록에서 '동합 숙모(=광산 김씨)가 들렀는데 종백애가 오늘밤에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한바, 추사의 모친은 출산 후 백일이 될 때까지 친정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7) 東閣問從伯愛添腫. 聞『壽第新說』一回.(1786.7.24/6-270)

28) ○從伯女讀內文萬曆壬午『遠接日錄』, 從事官許篈, 高敬命等所輯云.(1783.11.10/5-86) 한편 이 기록의 원문에는 단락이 시작되는 '○' 표시와 해당 인용문 사이에 "山下委存, 東閣聽"이라는 글씨가 지워진 흔적이 보인다. 이를 복원하면 유만주가 내종백 김이중(金履中)의 집에 사람을 시켜 문안인사를 전하고, 동합을 방문하여 종백녀가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보가 부가된다.

으로 엮어냈다고 하는 허봉과 고경명이 그 조건에 걸맞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이 책은 의주까지의 여정과 중국 사신과의 교류 등을 다룬 수준 있는 읽을거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열아홉 살의 기계 유씨가 『원접일록』의 한글 번역본과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대부가 여성들이 관심을 둔 읽을거리가 한글소설만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그런 예는 다음에서도 발견된다.

○아침에 상지상(上之上)에 올라가 화분에 심은 국화가 비로소 꽃망울을 터뜨린 걸 보다. 꽃송이는 붉고 꽃술은 노랗다. 발길을 돌려 선조(先祖)의 묘갈을 보았는데 바야흐로 큰 전자(篆字) 글씨를 새기고 있는 중이다. 동합에서 들으니 강씨(姜氏)의 『상봉록』(桑蓬錄)을 내문(內文)으로 번역한 것이 세 권이 되는데, 이 역시 연기(燕記) 가운데 보기에 적당한 것이라 한다. —1786.8.27²⁹⁾

유만주는 유준주의 집을 방문했다가 동합에서 『상봉록』의 한글 번역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³⁰⁾ 여기서 연기(燕記)인 『상봉록』을 썼다는 강씨는 강호부(姜浩溥, 1690~1778)이다. 그는 1727년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 이세근(李世瑾, 1676~1747)을 수행하여 연경에 다녀왔고 애초에는 한문으로 이 책을 완성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상봉록』의 한글 번역본 2권 또한 현재 전하고 있어 참조할 수 있는데, ‘상봉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원래 3권이었으나 첫째 권이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³¹⁾ 위

29) ○朝上上之上, 見盆菊始綻, 紅華黃萼. 迺見先碣, 方刻大篆. 東閣聞姜氏『桑蓬錄』內文翻爲三卷, 亦係燕記中合觀云.(1786.8.27/6-340)

30) 이 무렵 김정희를 출산한 지 백일이 채 되지 않은 기계 유씨가 친정에 머물고 있기는 했으나 그 정보의 제공자가 그였는지, 아니면 동합의 숙모 광산 김씨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31) 한글본 『상봉록』의 서문 참조. 이 서문은 강호부의 현손 원희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상봉록』은 우리 고도부 스양지(四養齋: 강호부의 호-인용자) 공이 연행하여 거오실 시의 중국 산천이며 풍속을 련노의 피곤하시물 이즈시고 디부인귀 보시게 하라고 쓰서이 낫낫 기록하신 칩이라 존손드리 츠츠 전하야 느려오더니 니히미되 고모기서 만리의 또 훈변 보깃노라 보니라 하시기 보너엿더니 그 집의 화지를 만는 회록 중의 초권이 그 속의 드러 소멸하니 다른 칩과 다르니 칩을 수도 업고 다시는 존손드리 초권은 못보기시니 마음의 억식하고 감참히기 억체키 어렵다 이 두 권이나 잘 간수하야 업서지지 아니케 하야라”는 구절이 있다.(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연행록선집 보유』 하(下),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3면) 그런데 『진주강씨대동보』에 따르면 강호부의 직계 현손 가운데는 ‘원희’

인용문에 언급된 것과 같은 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문본 『상봉록』과 한글본 『상봉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강호부의 증손인 재응(在應, 1794~1879)이 한문본에 서문을 쓰며 밝혀 놓았는데, 그에 따르자면 강호부는 모친을 위해 한문본 『상봉록』을 스스로 한글로 번역했다고 한다.³²⁾ 이와 같이 강호부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한문 저술을 번역했다는 사실에 더하여, 동합의 여인들이 그 번역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지면, 『상봉록』과 같이 한글로 번역된 연행록의 주된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일 가능성이 명확히 제기된다.

유만주의 당대에 해당하는 18세기 중후반에 한글로 된 연행록 혹은 통신사행록이 다수 저술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한문 식자층의 전유물이었던 사행록이 한글독자의 교양물로 확산되어가던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³³⁾ 한글로 된 여행기가 독서대중 가운데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행문학 가운데에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나 홍대용(洪大容)의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과 같이 애초에 한문으로 저술되었다가 이후 한글로 번역되거나 개작되어 별도의 두 언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번역이 여성 중심의 한글 독자층을 상정한 것이라는 추론 하에, 한글 기행문학의 독자층이 여성일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³⁴⁾ 한글본인 『을병연행록』과 한문본인 『담헌연기』(湛軒燕記)

라는 이가 보이지 않는바 그의 신원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32) 현재 전하는 한문본 『상봉록』은 1839년에 강재응이 한글본을 대본으로 하여 다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원본 『상봉록』은 강호부의 지인인 정수연(鄭壽延)이 빌려간 뒤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이후 강호부의 후손가에서는 한글본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재응은 전하고 있다. 또한 강재응은 예닐곱 살 무렵 어머니 서유인(徐孺人: 長城 徐氏-인용자)이 종종 자신에게 한글본 『상봉록』을 읽어 주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 책은 너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쓰신 연행록을 손수 번역하시어 너의 고조할머니께 드린 것이다. 너 또한 이렇게 문장을 잘 하고 또 멀리 유람하여 기행문을 써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此汝曾大父燕遊錄, 而手譯以獻于汝高王母者. 汝亦庶幾能文章又能遠遊, 而記行, 以示吾如是否耶?) 강재응, 『編述四養齋桑蓬錄序』, 『桑蓬錄』 권1(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연행록선집 보유』 상(上),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475면)

33) 정훈식, 『역자서문』, 『을병연행록』, 경진출판사, 2012, 6면.

34) 김혈조, 『왜 다시 열하일기인가』, 『열하일기』1, 돌베개, 2009, 8~9면. “북경에 이르기까지의 견문은 물론, 전인미답의 열하 지방에서의 체험은 18세기 조선의 선비에게만 읽을거리로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독자에게도 흥미의 대상이었다. 한글본 『열하일기』가 열하 지방의 체험을 위주로 번역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인용문에서는 한글본 『열하일기』의 독자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여, 두 가지가 각각 의도를 달리하여 기술되었고 그 가운데 전자는 집안의 어머니와 부녀자 등 여성 중심의 한글 독자층을 위한 것이라 한 견해³⁵⁾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자면 『음병연행록』과 같은 한글 연행록의 저술은 사대부가 내 여성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기계 유씨 가문의 여인들이 연행록의 한글 번역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을 포착한 유만주의 기록은, 사대부가 여성들이 한글로 번역된 연행록의 주된 독자층을 구성하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고 여겨진다.

(2)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보편적 식자층

유만주가 보고 들으며 기록한 종질녀 기계 유씨의 문자생활은 한글소설로부터 한글로 번역한 연행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서울의 유족한 사대부가 여성들이 누렸던 문화의 한 양상을 대표하기에 충분히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문화가 일부 상층 사대부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흙영』 내의 인물이 바로 유만주의 내종백(內從伯: 고종사촌형) 김이중(金履中, 1740~1787) 가의 여성들이다. 김이중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둘째딸이 유만주와 종종 교류하여 『흙영』에 존재를 남기고 있다. 안동 김씨(安東金氏)이며 『흙영』에서 ‘내종중애(內從仲愛) 혹은 ‘내중애(內仲愛), ‘내종녀(內從女)라 칭해진 이 여성은 앞서 언급한 추사 김정희의 모친 기계 유씨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여러모로 대조적인 조건에 놓여 있었다.

『흙영』에서는 남대문 밖 도저동(桃楮洞)에 있었던 김이중의 집을 산하(山下) 혹은 도곡(陶谷), 저동(渚洞), 도저(陶渚) 등으로 칭했는데, 이곳에 돈과 장작, 쌀 등을 보냈다는 기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³⁶⁾ 김이중이 외숙인 유

를 여성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과묵한 탓으로 그러한 견해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35) 김태준,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여행」, 『산해관 잡민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5면.

36) 이를테면 1782년 12월 15일 조에 “산하(山下)에서 기한(飢寒)이 위급하다 알려 오기에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는데, 같은 해 12월 21일 조에 또 “산하에서 급하다고 알려 왔기에 30문

한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근근이 살아갔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유만주는 평생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던 김이중과 그 기술을 지켜보며, 양반의 가난을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기도 했다.

유만주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서울의 본가에서 집안 일을 돌보는 처지에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김이중 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런저런 물품과 돈을 보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보냈다고 적은 물품 가운데는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떡과 종이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리고 이 떡과 종이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김이중의 딸들이었다. 이를테면 1784년 3월 15일에는 내종중애(內從仲愛)에게 종이를 보냈으며,³⁷⁾ 1784년 10월 22일에는 떡을 보냈는³⁸⁾ 기록이 보인다.

유만주가 종질녀 기계 유씨에게 떡과 붓을 보내며 편지를 쓴 데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넉넉한 집안의 외동딸로 구김 없이 자라났을 기계 유씨와 대조적으로 딸이 셋이나 되는 몹시 가난한 집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갔을 내종질녀 안동 김씨에게도 떡과 종이가 필요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같은 서울에 살고 있고, 빈부의 차이는 있으나 양반 사대부가에 속한 두 젊은 여성이 공유한 문화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떡과 종이로 표상되는 문자적 교양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다음 인용문은 이들이 문자 교양을 지니고 글을 쓴다는 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178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하에 장작을 보냈다.”는 기록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37) ○아침에 해주의 흰 종이 다섯 폭을 내종중애에게 보냈다.(朝送西白五幅, 于內從仲愛.1784.3.15/5-159)

38) 내종중애에게 편지를 써서 날마다 쓰는 용도의 옥광묵 반 개를 보내 주었다.(書副內從仲愛 日用玉光半笏.1784.10.22/5-373)

○내중애(內仲愛)가 내문(內文) 연기(燕記) 읊는 것을 듣다. 기록한 자는 영종(英宗) 정미년(1727)에 하지 겸 사은사(賀至兼謝恩使)를 따라 간 사람이다. 연경에 갔을 때 옹정제가 등극해 있었는데, 옹정제 때 쓴 연기로는 처음이라 한다. 배표(拜表: 사신을 파견하는 의식)할 때 영의정은 이광좌(李光佐), 좌의정은 조태억(趙泰億), 우의정은 심수현(沈壽賢)이었으며, 대제학(大提學)은 윤순(尹淳), 평안병사(平安兵使)는 이사성(李思晟)이었다. —1784.5.8³⁹⁾

○내문 연기를 이어서 듣다. —1784.5.9⁴⁰⁾

유만주는 내종질녀 안동 김씨가 한글 연행기 읽는 것을 이틀에 걸쳐서 듣고 있다. 이 때 내종질녀가 읽은 연행기는 영조 정미년 ‘하지 겸 사은사’를 따라간 이가 쓴 것이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미상이다. 다만 영조 정미년에 해당하는 1727년 11월에는 사은 겸 삼절 연공사(謝恩兼三節年貢使) 명목으로 정사인 낙창군(洛昌君) 이탱(李檉), 부사이세근이 연행을 간 적이 있는데,⁴¹⁾ 동합의 여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한글 연행기인 강호부의 『상봉록』 역시 이 때 따라간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서울의 부유한 사대부가 여성인 기계 유씨가 『원접일록』과 같이 여행과 외국인을 만난 경험을 기록했을 법한 책을 읽고 『상봉록』 등의 연행기에 관심을 보인 데서, 조선의 사대부가 여성들이 필요로 한 읽을거리가 한글소설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여성들이 한글 연행기의 중요한 독자가 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양반가의 둘째딸인 안동 김씨의 사례까지 보탠다면 한글 연행기의 주된 독자층으로서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계층은 더욱 명확히 부각된다.

지금까지 유만주 주변의 여성들이 처한 신분적, 경제적 상황과 그들이 읽은 한글 문헌의 성격을 검토하여 18세기 조선의 서울에서 식자층이 될 만한 여성의 범위가 널리 사대부가 여성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며

39) ○聽內仲愛念內文燕記。記之者，英宗丁未從賀至兼謝恩使，如燕時雍正御天下。燕記而雍正初也云。拜表時領撰李光佐，左撰趙泰億，右撰沈壽賢，大提學尹淳，平安兵使李思晟。(1784.5.8/5-224)

40) ○續聽內文燕記(1784.5.9/5-225)

41)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21면.

이들이 향유한 읽을거리 역시 한글소설 뿐 아니라 연행기와 같이 애초에 한문으로 쓰인 문헌의 한글 번역본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밝혔다. 다음에 서는 한글로 된 읽을거리를 향유하는 식자층 여성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하루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문밖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그렇게 있었다. 집안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임태후(任泰堙)에게 알리니 그는 나가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필시 농아(聾啞) 병에 걸린 것이다.”

임태후는 그 사람에게 글을 써서 왜 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매 속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병록(病錄)이었다. 그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7~8년 전 유행성 전염병에 걸리고는 갑자기 농아가 되었다.’

임태후는 다시 이렇게 글을 썼다.

‘돈이 있으면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환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집이 원체 가난해서 쌀 한 톨 돈 반 푼도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태후는 그가 측은하여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돈 3케미를 찾아 주고는 또 이렇게 글을 썼다.

‘내가 당신을 보니 마음이 매우 아프오. 이 병을 고치려면 사람 젖을 써야 하오. 그러니 이 3백 문(文)으로 쌀과 미역을 얼마간 사다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이웃 아낙에게 나눠주고 간절히 애걸하여 젖을 얻어먹으시오. 한참 먹으면 마땅히 효험이 있을 것이오.’ —1778.9.17⁴²⁾

42) 一日, 有人衣弊衣, 坐門外不去, 閉口不言. 家人怪之, 以告任, 任出見曰: “此人必病聾啞也.” 書問其由, 其人乃從袖出小紙, 卽病錄也. 錄中稱, ‘七八年前, 曾經時令後, 忽聾啞云. 任書示曰: ‘有錢病可治.’ 病者書曰: ‘家素貧, 無一粒半文, 有死而已.’ 任惻然傷之, 覓錢三緡以與, 又書示曰: ‘吾見君甚傷. 治此病當用人乳, 君宜以此三百, 略備米藿, 分諸隣婦有乳者, 懇乞而服之, 久當效也.’ (1778.9.17/2-205~206)

처음 소개되는 자료인 만큼 본 절의 주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을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은 24세의 유만주가 부친의 임지인 군위(軍威)에 머물던 시절 일기에 기록한 한 야담의 전반부로서, 경상도 풍기(豊基)에 살았던 유명한 의원 임태후(任泰后)⁴³⁾를 그 주인공으로 한다.⁴⁴⁾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일반적인 명의담(名醫譚)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태후가 지닌 의원으로서의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을 섬세히 고려하고 있는 유만주의 필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에서 환자의 병증을 통찰하는 임태후의 재능은 한 번 보기만 하고도 그 사람이 농아임을 파악했다고 하는 도입부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임태후는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환자와 어떻게 소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유만주가 이 야담에서 가장 주목하고 마음을 쏟은 국면은 이러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그는 ‘필담’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임태후는 글을 써서 왜 왔는지 묻고 환자는 자신이 써 온 병록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문자를 통해 침묵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유만주가 이 야담을 기록하며 필담이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

43) 임태후의 존재는 원증거의 『승사록』(乘槎錄)에서도 확인된다. 『승사록』 1764년 7월 1일 조와 7월 2일 조에 따르면 원증거는 일본에서 돌아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영천(榮川: 영주)과 풍기를 경유하며 의원 임태후를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원증거 저, 김경숙 역,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589~560면)

44) 유만주의 가계에는 가족력(家族歷)을 살필 필요성이 있어 보일 정도로 구성원 가운데 여러 사람이 질병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가 종종 보인다. 유만주 자신도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아픈 가족을 돌보아 했던바 일생 멀고 가까운 곳의 여러 의원들과 연락하고 의논하며 자신과 가족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 애썼다. 이런 탓에 유만주가 즐겨 기록한 야담 가운데는 명의를 소재로 한 것이 여럿 보이는데 인용한 임태후 소재의 야담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한편 임태후는 유만주와도 인연이 없지는 않았다. 족보상으로 유만주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백부 유한병의 아들로 입적되어 있다. 유만주의 양아버지인 유한병은 유만주와 비슷하게 병약한 기질을 타고났는데 26세에 부친상을 당하고는 심신에 충격을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유한병은 명의 임태후를 만나는데 희망을 걸고 서울에서 풍기 근방의 영춘(永春)까지 옛새나 걸려 내려갔지만 일이 어긋나 결국 임태후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27세로 객사했으니 이 때가 1748년이다.(『흙영』 1786년 11월 12일 조 참조). 요컨대 임태후는 유만주의 양아버지가 간절히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한 명의이기도 하다.

은 무엇보다 디테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터이다. 훌륭한 의사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을 얻기 위해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 처방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어 결국 그 병을 낫도록 끝까지 돕는 과정을 짙진하게 재현하는 것은, ‘사람의 젖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유만주에게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필담을 하고, 쌀과 미역을 사서 산모에게 주고 젖을 얻어먹도록 하게끔 자상히 알려주는 임태후의 친절한 모습은 이 과정에서 구체성과 개연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짧은 이야기가 임태후의 훌륭함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게 된 데는, 현실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작품에 반영하는 유만주 특유의 시선과 서술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능하면서도 친절한 의원 임태후를 주인공으로 한 야담의 전반부를 읽어 보았는데, 이 가운데 현실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야기의 개연성을 높이는 유만주의 서술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다시 조선 후기 여성이 향유한 문자문화라는 본 절의 주지로 돌아와 이 이야기의 후반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사람은 돌아가 임태후의 말대로 젖을 얻어먹었으나 서너 달이 지나도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나 드러누운 채, 살지도 죽지도 못하겠다는 꿈꿈 거렸다. 그의 아내는 걱정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웠으니, 등불 아래 언괘(諺釋)를 보다가 갑자기 내던지며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었다.

“팔자도 고약하다.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남편도 또 저러니! 불러도 대답이 있나, 뭐라고 할 말을 하나. 아이고, 슬퍼!”

그런데 아픈 남편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곧 이불 속에서 무어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슬퍼 마시오. 내 인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있소.”

아내는 크게 놀라고 기뻐서,

“이게 꿈인가, 진짠가?”

라 했다. 그 환자는 나중에 병이 다 낫자 직접 임태후를 찾아가 그 일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1778.9.1745)

이 이야기에서 유만주는 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남편을 둔 이 여성의 근심스럽고 산란한 내면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등불 아래 언패(諺牌)를 읽다가 집어던진다는’ 행동을 묘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여기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아병 환자의 아내는 언패, 즉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앞서 현실을 픽진하게 반영하여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는 유만주의 야담 기술 태도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언패 역시 같은 의도에서 선택된 소재일 터이다. 즉, 언패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향유물이고, 특히 농아병 환자의 아내와 같은 답답한 처지의 여성에게 위안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는 현실적 고려 하에 등장인물이 등불 아래 언패를 읽는 장면을 설정하였고, 다시 이 인물의 심적 동요를 적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책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유만주는 현실적인 개연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여성의 형상을 만들어냈고, 이에 독자는 그 결과물이 상당부분 유만주의 현실감각을 반영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안팎에 드러난 이 여성의 처지를 검토하면, 18세기 조선 여성의 문자 향유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작품 내의 단서로 짐작건대 이 여성은 가난한 식자층의 아내이다. 앞서 제시한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듯 농아병 환자인 이 여성의 남편은 자신의 병록을 작성하고 필담으로 의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읽고 쓰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고, 아마도 병 때문에 극빈으로 주저앉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 내에는 신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채 ‘一人’, ‘病者’ 등으로만 지칭되고 있지만, 이 환자를 정황상 몰락한 양반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⁴⁶⁾

45) 其人歸, 如任言服乳, 數三朔, 姑無見效, 常臥呻不生不滅. 其妻心懷愁亂, 於燈下看諺牌, 忽擲地而自嘆曰: “八字惡矣! 家既貧窮, 丈夫又如此, 有呼無應, 有言莫吐, 悲哉, 悲哉!” 病者忽聽其言, 卽於被中作聲曰: “莫須悲! 我今能聽能語也.” 妻大驚喜曰: “此夢耶, 眞耶?” 後病良已, 見任說其事云.(1778.9.17/2-206)

46) 유만주는 이 야담을 일기에 적어 둔 뒤에 내용을 간결히 하기 위해 대목 수정을 가했는데, 이 때 지워진 내용 가운데 “其人乃畧守班号者也.”(그 사람은 대략 양반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던 자였다.)라는 구절이 있어 이와 같은 추정에도 더욱 힘을 실어 준다. 이 구절은 농아병 환자의 병록을 인용한 부분 바로 뒤에 줄이 그어져 지워진 채로 남아 있다.

또한 이 여성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실존인물인 의원 임태후의 거주지는 풍기였다. 그리고 농아 병 환자는 특별히 먼 곳에서 왔다는 언급이 없는 데다 병이 나은 후 임태후를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역시 풍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⁷⁾ 유만주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윤색하여 일기에 기록한 장소 역시 서울의 자기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임지인 경상도 군위현의 책방(冊房)이었다. 그는 의흥(義興)에서 온 객과 밤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임태후의 일화를 접하였는데, 의흥은 군위의 인접지역이며 이 두 지역은 모두 임태후가 살았던 풍기와 그리 멀지 않다. 따라서 유만주가 기록한 임태후의 일화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구전에 기반한 것이고 여기에 잠시 서울을 떠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기록자 유만주의 체험과 그에 따른 현실감각을 반영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 야담에 나타난바 지방에 거주하는 가난한 몰락양반의 아내로서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한 여성의 형상은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판단을 따른다면 18세기 조선에서 문자문화를 향유했던 여성의 범위는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 즉 널리 양반 신분에 해당되는 여성으로 한글을 해득하고 한글로 된 읽을거리를 향유하는 식자층이라는 범주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빈부와 경향(京鄕)은 본질적인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사대부 남성의 어문생활과 유만주의 한글 사용

언어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남성 사대부는 문어로는 주로 한문을 구사하고 구어로는 조선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말과 글의 분열을 체현하고 있는 계층이며, 유만주 역시 이 계층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한문과 한

47) 원래 이 이야기의 앞뒤로 임태후의 의술을 다룬 독립된 야담이 하나씩 더 있다. 간밤에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통해 이웃의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산사에서 도깨비의 공격을 받은 후 거식증과 구토에 시달리던 한 선비를 치료한 그 각각의 일화에서도 임태후는 근방 혹은 그리 멀지 않은 지방의 환자를 상대한 것으로 보인다.

글은 각각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구별되고 계층화되어 차별적인 가치가 부여된다. 즉 이 체계 안에서 진서로 지칭되는 한문은 한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한문 교양을 갖춘 남성 사대부라 정의할 수 있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좀더 구어에 밀착한 문자인 한글을 전혀 몰랐을 것 같지는 않다. 한글 창제의 저변에 이미 한문 교양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대상으로 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해 있었던바, 국가의 정책에 대해 교시하는 글을 각각 ‘진(眞)과 ‘언(諺) 두 문자로 작성하여 반포하는 관례는 그런 의도가 계승·발현된 국가정책이라 하겠다.⁴⁸⁾ 따라서 통치계급에 해당하는 남성 사대부 계층이 한글을 습득하는 것은 이중의 문자체계가 존속하는 조선의 언어현실을 심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었을 터이다. 한글 창제 이래 탁월한 학자와 문인들이 시조나 가사와 같이 한글로 기술되는 장르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왔고 그 가운데 연군지정(戀君之情)이라든가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등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한글로 문자행위를 하는 다양한 동기 가운데 한글을 전용하는 피지배계층으로부터 통치계급이자 지식인인 자신을 구별 짓고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한글로 된 자신의 글을 읽을 익명의 독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가 개입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남성 사대부 계층의 한글 사용은 역설적으로 지배계층으로서의 자의식 내지는 정치적 입장과 어느 정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계층의 한글 사용은 사적 영역에서 또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 지배계층으로서 정치적 지위를 갖거나 또는 그런 지위가 기대되는 남성 사대부들은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 남편이자 아들, 아버지

48) 『흥영』에서도 조지(朝紙)와 같은 관보로부터 이런 교시를 읽은 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그 가운데 하나로 사월 초과일에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다는 소식을 한문과 한글로 방을 붙여 알리도록 하라는 전지(傳旨)를 읽었다는 내용이다. ○閣道恭瞻傳旨. ‘今日是名節也, 民庶會飲不是異事, 今夜勿爲出禁事. 分付三法司, 榜以眞諺.’ 沿西城陟南皇.(1780.4.8/3-79) 또한 『명의록』과 같이 국왕의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책의 한글 번역본을 배포하는 것 역시 유사한 의도에서 시행되는 정책일 터이다. 유만주는 부친을 모시고 군위에 머물 무렵 『명의록언해』의 배포에 간여하며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등의 처지가 되어 여성인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관계망을 형성한다. 간혹 높은 수준의 한문 교양을 갖춘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대부가 여성들은 대체로 한글을 기반으로 문자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들과의 관계망 안에서 남성 사대부들은 역시 한글을 수단으로 여성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한글을 매개로 한 사대부가 내의 문자생활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간(諺簡)이라 일컬어지는 한글편지이다. 남성 사대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딸 등 한글을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술한 한글 편지를 주고받았을 터이고, 이 편지들은 문집에 수록될 자격을 얻지 못한 채 산일되었을 따름이다. 우암 송시열이 모친께 보낸 한 장의 한글 편지가 전해 오고 있는데,⁴⁹⁾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다른 편지가 있었을지는 짐작만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포 김만중이 모친을 위해 『구운몽』 등의 소설을 한글로 썼다는 사실도 남성 사대부가 한글을 전용하는 가족 구성원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글을 사용하는 어머니께 한글로 편지를 쓰는 일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한글로 소설을 쓰는 일과 기본적으로 같은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여성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 시도로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학사적 현상, 즉 사대부 남성들이 한글로 시조와 가사를 창작하여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여성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글로 산문을 쓰고 있었다는 것에서 남성 사대부들이 자신들과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 크게 보아 사대부 남성이 아닌 계층을 타자로서 고려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부차적인 문자로서 한글을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언어생활이 공사 영역 전반에 걸친 것임을 감안한다면 사대부 남성이 한글을 해독한다는 것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음은 물론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⁰⁾ 그렇다면 한글을 해독했던 일반적인 사

49) 한국 한글서예연구회, 『조선시대 문인들과 한글서예』, 다운샘, 2006, 180면의 사진 참조.

50) 이런 견지에서 ‘언문을 몰라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된다.’는 연암 박지원의 고백은 당시 사대부의 보편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 문인으로서 그가 지닌 특수성 내지는 하나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다.

대부 남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유만주가 서 있는 곳은 어떤 지점인가?

처음부터 지적인 사향이지만, 유만주가 한문 일기에 한글을 섞어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입각점을 보여준다. 한문 일기에 한글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은 그 동시대 혹은 그 후대에 기록된 여타 남성 사대부의 일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유만주의 동시대인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기를 쓴 노상추(盧尙樞, 1746~1829)라든가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경우가 그러하고 그보다 후대의 일기로서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이어지며 116년간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저상일월』(渚上日月)의 경우 19세기 전반에 쓰기 시작하여 6.25 동란의 시기까지 지속되지만 표기문자는 변함없이 한문이다.⁵¹⁾ 대부분 남성 사대부 계층에 속하는 한문 일기의 기록자들이 한문으로만 일기를 쓴 것은, 그들의 일기쓰기, 더 나아가 문자생활 자체가 지닌 관습성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인다. 앞서 언급한 정원용이나 노상추의 일기, 『저상일월』 등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계승하는 가장(家長)의 입장에서 가내사를 총괄하는 것과 벼슬아치로서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일기에 반영하고 있다. 공사(公私) 영역에 걸친 이들의 자기규정은 사대부 남성이라는 계층적 특성을 고스란히 구현한 것이며, 이에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 역시 자신의 계층적 관습을 따라 한문에 국한된 것이다. 요컨대 다른 계층의 문자인 한글을 사대부 남성

51) 한편 『흥영』보다 약 100년 뒤에 쓰인 『윤치호 일기』는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세 종류라는 점에서 추후 비교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 일기의 경우 애초에 한문으로 쓰기 시작했다가 짧은 기간 동안 한글로 기록한 다음 다시 영어로 표기문자를 바꾸었다. 그런데 윤치호는 영어 일기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한글로 일기를 쓰는 데 제약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임과 동시에 그가 한글을 구사하는 데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의 일기는 대단히 솔직하다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는데, 그가 한문으로 기록한 부분을 보면 내연의 여인과 있었던 불륜관계의 전말을 소상히 변명하고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는 전처가 부정한 여자라는 점을 적시하여 해명하는 등 일신과 관련된 문제를 놀라울 만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글로 표기된 일기는 대단히 건조하고 소략하다. 그러다 다시 영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하루의 기술 분량이 대폭 증가하고 내용 역시 내면의 움직임과 실제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담게 된다. 윤치호의 소략한 한글 일기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의식의 제약에 따른 것인지 문장 구사능력의 제약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그의 한문 일기와 한글 일기의 비교를 통해 그에게 한글 글쓰기가 당시 통용되던 문어체인 한문 글쓰기보다 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에게서 조선어에 대한 자의식이 그다지 예민하게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인 자신의 본격적 문자생활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만주가 자신의 일기에 한글을 섞어 쓰고 있는 것은 미미하나마 그의 글쓰기가 이와 같은 관습성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⁵²⁾

다음으로 유만주의 한글 사용을 그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흙영』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서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이 글자들이 구사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유만주는 날마다의 관행으로서 일기의 초고를 쓰는 한편으로, 그 내용을 깨끗이 베껴 『흙영원본』(欽英元本), 즉 현전하는 『흙영』으로 정돈하는 행위 역시 시간을 두고 진행하였다. 불후를 기대하며 자신의 글을 정돈하여 묶었다는 정황을 반영하여 필사본 『흙영』의 한문 서체는 비교적 해정(楷正)한 편이다. 그런데, 이 일기 가운데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유만주의 한글 서체는 그의 한문 서체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두드러지며, 그것은 각 이 질 정도로 반듯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유만주의 한글 필체를 자세히 논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남성 사대부 및 사대부가 여성들의 한글 글씨체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선 시대 사대부 남성의 한글 필체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언간에서다. 이 가운데 일례로 송강 정철이 아내 문화 유씨에게 보낸 한글편지를 보면 그 글씨는 특정한 필체라 정의하기 힘든 줄렬한 흘림체라 할 수 있다.⁵³⁾ 정철이 이러한 글씨체를 구사한 것은 우선, 편지라는 것이 예술작품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이기 때

52)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이 관습성을 탈피한 예가 유만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와 같은 일기와, 정조(正祖)가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등 문집으로 수렴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던 한문 기록 가운데 한글을 섞어 쓰고 있는 예가 간혹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유만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대부 남성들에게 한글 사용이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글쓰기 자체가 관습성 탈피의 조건이 되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이런 예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여타의 사대부 남성-이를테면 연암 박지원-에 비해 한글에 친숙했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한중록』에 나타난바 혜경궁 홍씨의 언급에 따르자면 어린 시절의 정조는 매일같이 모친께 인문으로 쓴 문안 편지를 올렸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53) [http://www.hangeulmuseum.org/sub/special_flash/2007/special_ex\(2007\).html](http://www.hangeulmuseum.org/sub/special_flash/2007/special_ex(2007).html) 디지털 한글 박물관의 '옛 한글편지 특별전'에서 제공된 사진 참조.

문일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한글이 그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주된 사용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터이다. 주로 아내를 대상으로 하여 마흔 통의 한글 편지를 남기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한글 서체는, 감히 졸렬하다고까지 형용할 수는 없지만 급히 쓴 흘림체라는 점에서는 정철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⁵⁴⁾ 실용문에 해당하는 편지의 특성상 내용 전달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감안하더라도, '서체'라는 형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성 사대부에 해당하는 이들이 쓴 한글 편지에서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더 나아가 한문 서체에서 정철과 김정희가 보여주는 뚜렷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글과의 관련에 있어서 남성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점이 적지 않으리라는 추정에 이르게 된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하여 글씨로 사람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관념이 예로부터 있어 왔거니와 이 말은 오직 한문 서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적어도 한글 서체로는 일반적인 남성 사대부 문인 각각의 개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실용문인 편지에서라 할지라도 사대부가 여성의 한글 서체는 남성의 그것과 같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언간 중에는 흘림체의 궁체로 쓰여 있는 것이 많은데, 이는 궁체가 여성 특유의 한글 서체로 통용되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앞서 유만주가 자신의 종질녀이자 이후 추사 김정희의 모친이 된 기계 유씨와 편지를 주고받은 일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글로 쓰였을 이 편지들의 글씨 가운데 기계 유씨의 필체 역시 흘림체의 궁체였을 것이다. 추사체(秋史體)의 한 연원이라고까지 언급되기도 하는 기계 유씨의 아름다운 궁체는 1791년에 그가 남편 김노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⁵⁵⁾ 사대부가 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의 하나로 편지쓰기가 중시되며, 적지 않은 양반가 여성들이 정성스러운 내용과 단정한 글씨를 갖춘 편지를 쓰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바⁵⁶⁾ 기계 유씨의 편지는 이런 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준 예에 해당한다 하겠다.

정철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대부 남성이 서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54) 위에서 언급한 마흔 통의 편지에 나타난 추사 김정희의 한글 서체는 다음 영인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국 외 편, 『추사 한글 편지』, 우일출판사, 2004.

55) 유흥준, 앞의 책, 49면의 사진 참조.

56) 이경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39집, 2005.

흘림체의 한글 편지를 쓴 것과, 기계 유씨가 아름다운 흘림체의 궁체로 한글 편지를 쓴 것은 각각 자신이 속한 계층의 성향을 충실히 구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사대부 남성은 한글을 해독하고 필요한 국면에서는 글씨로 쓰기도 하지만 한글에 대해 자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자라는 자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자신이 본격적으로 구사하는 문자는 한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대부가 여성에게는 궁체로 우아하고 정성스런 편지를 쓸 것이 기대되었고 기계 유씨는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그러한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만주의 글씨체는 정철과 같은 사대부 남성이 보여주는 흘림체와도 다르고, 여성들이 주로 구사하는 우아한 궁체와도 비슷하지 않다. 유만주의 한글 서체가 각이 질 정도로 반듯하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거니와, 그는 일반적으로 흘려쓰기 쉬운 자음 ‘ㄹ’을 모든 획이 직선으로 보이게끔 반듯하게 썼고, 심지어는 자음 ‘ㅇ’을 18세기 말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반치음(△)과 가까운 형태로 쓰고 있기도 하다. 이런 서체의 특징이 몇 년을 두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데서 그가 의식적으로 특유의 한글 서체를 만들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 그는 한글의 서체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어 “우리나라의 언문 글씨로 팔푼획(八分畫)을 만든다면 팬참을 것”⁵⁷⁾이라고 한 적도 있다. 여기서 팔푼획이란 팔푼체(八分體)를 응용한 획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팔푼체가 예서(隸書)의 일종으로 흘림체와는 거리가 먼 반듯한 글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만들고자 하는 이 서체와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한글 서체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⁵⁸⁾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한자의 서체 가운데 유만주가 평소 선호했던 것이 팔푼체와 지향하는 바가 유사한 고전(古篆)이라는 사실이다. 『흙영』의 표지에 쓰인 글자는 모두 유한지(兪漢芝)의 필체로 추정되는 전서(篆書)로 되어 있는데,⁵⁹⁾ 책 표지에 해서(楷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는

57) ○以東國諺書，捌爲八分畫，亦可。(1781.10.16/4-97)

58) 팔푼체는 전서(篆書)를 지향하는 예서로서 좌우대칭이며 반듯한 모양에 가깝다. 또한 팔푼체가 전서에 경도된 것은 ‘고’(古)에 대한 지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59) 이 추정은 『흙영』의 다음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기원(綺園: 兪漢芝)이 고전(古篆)으로 비로소 『흙영』 10목(目)의 소제(小題)를 써 주었다. 다만 세행(歲行)과 사시(四時)만을 썼다. 굵은 독호(禿毫) 한 자루를 주다(綺以古篆始書『欽英』十日小題。止書歲行及四

상당히 특이한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선택이 유만주의 취향을 반영한 것임은 『흙영』의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로소 계환(繼煥: 유준주의 아들)의 나귀를 타고 기(綺: 유한지)에게 갔다. 새로 간행한 족보의 서목(要書)을 전서(篆書)로 써 달라고 요구하니 다음과 같이 논정하였다.

“창졸간에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니 조용히 해 두는 게 좋겠네. 『흙영』 여러 부(部)의 서목을 쓴 일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 번 두고 가 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서로 서목을 쓰는 것이 전범에 맞지 않고 장난하는 것 같다고 싫어하기도 한다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논정하였다.

“아닐세, 아니야. 그렇지 않네. 대저 전서라는 것은 서문(書文)의 본원(本原)이야. 그러니 예서나 해서 같은 여러 서체는 모두 고전(古篆)의 지류라네. 지금 또 대단히 존중되는 문서들에서 모두 해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전서를 써서 서적의 제목을 쓸 수 없단 말인가. 행서나 초서 같은 것은 본디 안 되는 것일 뿐이지만.”

나는 예전에 서적의 첫머리에는 모두 전서로 제목을 쓰는 게 마땅하며, 조금도 이상하거나 어려울 것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옛 것을 좋아하는 이와 말할 수 있을 뿐이다. —1787.4.21⁶⁰⁾

자신의 글을 엮은 책의 표지는 물론, 기계 유씨 가문에서 새로 편찬한 족보의 표지에도 전서를 써 넣으려 하고, 여기 대해 통념을 들어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유한지에게 “아닐세, 아니야. 그렇지 않네.”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유만주의 태도에서 전서에 대한 강하고도 일관된 취향을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태도가 사물의 근본을 중시하는 호고(好古)의

時. 副大東禿毫一枝.1786.2.1/6-147)

60) ○始以繼衛之綺, 從以新譜要書目以篆, 訂: “倉卒則輒失, 意靜容而勝. 『欽英』諸部之目, 可徵也. 試副其留. 或嫌篆目不典, 涉于漫戲.” 余訂之曰: “否否, 不然. 夫篆者, 書文之本原也, 則隸楷諸體, 皆古篆之支流也. 今又大尊至敬之文書, 皆用楷書, 則獨不可以篆書篆書籍之目乎! 至若行草, 則固不可耳.” 余嘗謂于凡書頁當悉題以篆, 毋少疑難也. 然此惟可與好古者道.(1787.4.21/6-528)

지향에서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유만주는 한자의 서체를 통해 자신의 일관된 지향과 취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한글 서체도 미미하나마 이와 같은 취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한문을 주된 문자로 사용하는 남성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보편적인 언어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한글의 서체에 대한 별도의 자의식을 표하지 않았던 여타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한글을 자신의 문자 영역에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한글 사용에 대해 뚜렷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징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유만주의 반듯하고 각진 한글 서체는 한글 사용자인 남성 사대부로서 그의 입각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흙영』에서 한글로 표기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만주는 “조선의 언어와 문자는 두 길로 나뉜다.”⁶¹⁾는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기에 한글로 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는 『역어유해』(譯語類解)와 같은 책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선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물명(物名)을 한글과 한자의 음차를 혼용하여 표기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⁶²⁾ 그 외 자신이 접한 시조 작품⁶³⁾ 등을 한글로 적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자국어 관련 지식을 수합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글을 구사한 것이 라기보다는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자국의 이중적 문자 생활을 학문적 차원에서 객관화한 결과물에 가깝다. 『아언각비』(雅言覺非)를 저술한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나 자국어의 어휘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글을 통해 나타낸 이옥(李錡, 1760~1812)과 같은 동시대 문인들 역시 이런 견지에서 유만주와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은 자국어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유만주가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한글을 구사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점과 관하여 다음 예문이 참조된다. 한글이 혼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위해 원문을 번역문과 함께 제시한다.

61) ○東方言語文字, 分爲二途.(1776.6.17/1-169)

62) 1780년 7월 1일 조 및 7월 2일 조 참조. 『흙영』에 나타난 자국어 물명(物名)의 목록화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63) ○見時謠, ‘西風 | 짓듯 부니, 鳴蟬 | 간디엿다. 船卜 | 破船호니, 明春乙 어이 헐고. 置之라, 靑樓矣 시위나니, 此家두 간디엿다.’(1787.2.5/6-476)

○晏後, 虛譫略煞氣便昏沈, 循撮與身熱一向無減, 精神亦顛錯. 向夕, 用議定三黃石膏湯, 衆議訂其必有動靜. 四合米飲及石魚膏水, 水不入腹. 夜症勢越劇, 便道又塞腹中飽滿. 初更, 量急錄諸症, 書問醫洪云: “自午至初昏泄瀉, 午以後少止, 煩譫亦少止, 循摸則時時爲之. 米飲十餘次, 藥二次, 連爲飲下腹中, 似有飽滿之意, 似睡非睡, 必是昏沈. 胸以上有潤氣, 面部與背後微有汗, 自腹至足則보송보송. 咳嗽則間間有之. 初更以後, 身熱較晝更加. 恒開口呼吸, 比昨加急, 微有느기느기樣者二次. 譫語不成聲, 手戰比前特甚. 背脊, 以漏纜罷, 卽請送騎, 詳診議藥.”

○初七日追錄. 喘息入少出多. 凡食米飲트림則不吐, 트림不出則吐. 若眞箇痞塞, 則飲食必嘔逆不順受, 而今則不然, 有進輒飲了無難意, 而旣入後, 則盤旋於胸間, 終不順下, 或意其爲蛔滯蛔泄.

○오후 늦게 심망 증세가 대략 줄어들고 혼침(昏沈: 정신이 혼미해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헛손질⁶⁴과 신열 증상은 여전히 차도가 없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저녁 무렵 의논하여 삼황석고탕을 쓰기로 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반응이 있을 것이라 한다. 네 가지(묵은쌀, 청량미, 홍두, 녹두·인용자)를 합한 미음과 석어고(石魚膏: 조기를 고아 만든 약인 듯·인용자) 희석한 물을 복용하게 했는데, 그 물에 전복은 넣지 않았다. 밤이 되자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곧 뱃속이 팍 차서 막힌 것 같다고 말했다. 초경(初更)에 여러 증세를 헤아리고 급히 적어 의원 홍씨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 물었다. “낮부터 초저녁까지 설사를 하다가 오후부터 조금 그쳤다. 심망 증세도 조금 그쳤지만 헛손질은 때때로 한다. 미음은 십여 차례 먹었고 약은 두 차례 먹었다. 연달아 마시게 하니 뱃속이 팍 찬 것 같다고 한다. 잠든 것 같으면서도 잠든 게 아니니 필시 혼침(昏沈)이다. 가슴 위쪽으로는 윤기가 있고 얼굴과 등 뒤에는 땀이 약간 나며 배부터 발까지는 보송보송하다. 심한 기침을 간간히 한다. 초경 뒤부터는 신열이 낮에 비해 더 심하다. 항시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데 어제에 비해 숨이 더욱 가쁘며 약간 흐느끼는 것 같은 양을 두 번 했다. 헛소리를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못하며 손떨림은 전에 비해 유독 심하다. 뒷면에 답을 해 달라. 파루(罷漏) 되자마자 곧 탈것을 보낼 테니 자상히 진맥하고

64) 헛손질: 수의모상(搜衣摸床). 심망상태의 환자가 침구를 잡아 뜯는 것.

약을 의논해 달라.” —1787.5.11

○초7일(1787년 5월 7일-인용자)치의 병록을 되짚어 적는다. 숨을 쉴 때 들숨은 적고 날숨은 많다. 대체로 미음을 먹고 나서 트립을 하면 토하지 않는데 트립이 나지 않으면 토한다. 정말로 속이 꽉 막힌 것이라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구역질이 나서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들어갈 때마다 삼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들어간 뒤에는 명치에서 땀들면서 끝내 순순히 내려가지 않는다. 혹시 회충(蛔蟲)이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한다. —1787.5.11

이 인용문은 모두 1787년 5월 11일 조에 해당하는 몹시 긴 일기의 일부 분이다. ‘보송보송’이라는 형용사, ‘눅기늑’이라는 동사, ‘트립’이라는 명사를 찾아볼 수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단어들어 사용된 맥락은 기실 상당히 비극적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들어 모두 이 일기를 쓴 다음날인 1787년 5월 12일에 죽게 될 유만주의 아들 구환(久煥)의 병세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글 어휘들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것이 한자 단어에 대한 주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문과 동등하게 문장 성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실 ‘보송보송’이라든가, ‘흐느끼다’, ‘트립’ 같은 고유어 단어에 한자 번역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각각 ‘乾燥(건조하다), ‘泣涕(흐느껴 울다), ‘咯(트립) 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글 단어가 나온 데는 근본적으로 위독한 아들의 상태를 묘사해야 하는 촉급한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한문 글쓰기 가운데 한글이 섞여든 예는 유만주의 동시대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近日僻類爲뒤죽박죽之時, 有時有此無根之嘵嘵, 也是不妨.

요사이엔 벽패(僻牌)의 부류가 뒤죽박죽된 때라 간혹 이런 근거 없는 말로 시끌시끌하기도 하지만 역시 나쁠 것 없소. —1797.4.11⁶⁵⁾

以人之之만조爲言, 計不得已.

(李義弼을 평안감사로 지명하고자 했으나-인용자)그 사람이 만조하다는(불 품없고 잔망하다는-인용자) 말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소. —1799.11.15⁶⁶⁾

위의 글은 유만주와 같은 서울에 살았으며 그보다 세 살 연상인 정조(正祖, 1752~1800)의 친필 편지 297통 중의 일부로서, 나타난 바와 같이 ‘뒤죽박죽’, ‘만조’와 같은 한글 단어가 한문 문장에 섞여들어 있는 양상을 보여 준다. 심환지(沈煥之, 1730~1802)를 수신자로 하는 편지들을 엮은 이 『정조어찰첩』(正祖御札帖)이 ‘편지정차’라는 견지에서 분석되고 있기도 하거니와,⁶⁷⁾ 위의 인용문 역시 당시 활동하던 정과 가운데 하나로서 벽패(僻底)를 언급하고, 인사 처리에 대한 해명을 하는 등 국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사대부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⁶⁸⁾ 각각 최상층과 최말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 국왕 정조와 만년 거자(擧子) 유만주가 동일하게 한문 문장 안에 한글 단어를 문장성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은,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 당시의 한문 사용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의 원초적 형태라 표현할 만한 이와 같은 문체는 공히 한글에 대한 자의식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앞서 위독한 아들의 증세를 기록한다는 촉급한 상황이 한문 안에 한글이 섞여든 배경이 된다고 언급했는데, 정조의 글 역시 시간을 다투는 현안과 관련된

65) 장유승 외 역, 『정조어찰첩』 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29면의 사진 참조. 번역은 이 책에 실린 것을 참조하여 약간 고침.

66) 장유승 외 역, 『정조어찰첩』 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539면의 사진 참조. 번역은 이 책에 실린 것을 참조하여 약간 고침.

67) 임형택 외, 『『정조어찰첩』-편지로 읽는 ‘정조실록’』,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529면.

68) 이는 연암 박지원의 다음 분류법을 따른 것이다. “夫士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박지원, 『原土』, 『연암집』 권10)

견해를 근신(近臣)인 심환지에게 즉시 하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였다는 점에서⁶⁹⁾ 유만주의 것과 통하는 바가 있다. 즉 문체와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구어를 반영한 즉시적 표현을 한 것이 한글의 혼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이에 이와 같은 문체는 한글에 대한 자의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소산에 가까운 것이 된다. 이처럼 표현의 즉시성을 반영한 한글 혼용의 문체는, 비록 한문을 자기 계급의 공식적인 문자로 전용(專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사대부의 의식 저변에서 조선의 구어와 한글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며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채 잠복하고 있었던 정황을 짐작케 한다.

한편, 유만주가 한글 혼용의 문체를 보여준 일기와 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한 가지 남아 있다. 인용한 글은 일기인 동시에 의원에게 보일 병록(病錄)의 일부분이고 또 의원에게 상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이기도 한데, 이 점은 사대부가 중인이라는 다른 계급의 식자층과 소통할 때 한글의 혼용이 관행적으로 용인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정조의 편지가 심환지라는 상층 사대부인 수신자를 고려한 것임을 근거로 하여 사대부 계급 내에서 한글의 혼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유만주의 예는 그러한 관행이 통용되는 계급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의원은 아니지만 같은 중인 계급에 속하는 역관(譯官)들이 한글을 해독함은 물론 한글로 일본인들과 서신을 주고받기까지 한 예가 최근 보고된 바 있는데,⁷⁰⁾ 이런 예들을 통해 한글이 종래의 통념처럼 여성에게 국한된 문자가 아니라 좀 더 광범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문자로서, 특히 계층 간 소통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결론에 다가갈 수 있다.

유만주가 자신의 일기에 한글을 혼용하고 있는 예에서 출발하여, 한문이 가장 중요한 문자로 간주되던 당대 상황 속에서 한글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정황을 추론해 보았다. 그렇다면 유만주의 한글 사용은 다만 당시의 보편적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9) 임형택 외, 앞의 글.

70) 정승혜, 「조선통사가 남긴 대마도의 한글편지에 대하여」,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2012.

○陪家大人出小荷堂. 池水之澄漪者, 變爲青萍며홀며홀. 蓮葉有一二出水者, 始成方池眞形, 而觀瀾則不及前也. 東堤舊種東海紅四五本, 今見開花政鮮, 照水搖影, 甚似畫屏. 三島林翠, 亦影池可愛. 更賦難韻. (….) 薄暮而入.

○가대인(家大人)을 모시고 소하당(小荷堂)으로 나가다. 잔물결이 지던 맑은 연못물이 변하여 푸른 찌꺼기가 머홀머홀했다. 연엽(蓮葉) 한둘이 물 밖으로 내밀어 비로소 방지(方池)의 참된 모습을 이루었으나 물결의 모습은 예전만 못했다. 동쪽 독에는 예전에 심은 동해홍(東海紅: 해당화) 네다섯 그루가 있는데 지금 보니 꽃이 피어 참으로 고왔다. 물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꼭 그림병풍 같았다. 삼도(三島)의 푸른 나무들도 연못에 그림자가 어려 사랑스러웠다. 다시 '난(難) 자 운(韻)으로 시를 지었다. (….) 저물녘에 들어오다.

—1784.4.6

유만주의 일생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했던 시기에 쓴 위의 일기는 아들의 병록을 적은 3년 후의 글과는 사뭇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먼저 이 글은 아들의 병록을 적을 때와는 달리 촉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경을 보며 가능한 한 성실한 묘사를 하고자 했고 그 정경으로 촉발된 상념을 시(詩)로 형상화했으며, 저물녘에 들어온 이후에야 이 모든 것을 회상하여 일기에 적었다. 따라서 여기서 한글이 사용된 맥락은 구어의 무의식적 표현, 혹은 표현의 즉시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 글은 유만주가 부친의 임지인 해주(海州)에 머물 때 종종 가 보았던 한 연못의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머홀머홀(하다)’이라는 형용사가 한글로 구사되고 있는 것은 그 연못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며, 여기서 유만주가 자신의 일기에서 한글을 구사하는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보고 있는 정경을 가장 푹진하게 묘사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연못의 형상을 표현하기에 ‘머홀머홀’이라는 고유어를 대신할 수 있는 한자어가 없기 때문이다.

‘머홀머홀은 구름이 험상궂게 흘러가는 모양을 형용하는 말로, ‘험하다’를 뜻하는 ‘머홀다’의 어간을 두 번 반복하여 만들어낸 것이다.」⁷¹⁾ 그럼에도

71) ‘머홀머홀’의 잘 알려진 용례로는 정지용의 시 「조찬」(朝餐)의 한 구절이 있다. “해사살 피

‘險險이라는 한자 어휘로는 이 말의 함의를 표현하기 어렵다. 이색(李穡, 1328~1396)의 시조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흘에라”로 가장 잘 알려진 이 말은, 대상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보는 이에게 끼치는 심리적 영향 혹은 보는 이의 그 대상에 대한 심적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흥미로운 단어이며, 유만주가 이 말을 굳이 사용한 것 역시 그러한 함의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유만주는 1784년 윤3월 25일 조에서도 이 연못에 대해 “물무늬의 모양은 한 가지가 아니어서 때론 손바닥만 한 은조각이 번득이며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론 흩어져 물의 반딧불이가 드문드문 비쳤다가 훌쩍 사라지는 것 같고 때론 섬세한 주름이 마치 비단과 같고 때론 일렁이는 동심원이 그릇과 같다.”⁷²⁾며 심미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시 와 보니 맑고 아름답게 물무늬가 지던 연못에 온통 물이끼가 끼어 퍼렇게 어롱거리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와 같은 경물과 심정의 변화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머흘머흘이 떠올랐는데, 이 말을 도저히 한문으로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써 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사대부 문인이 한문 글쓰기를 해 나가며 현실을 가장 꺾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한 방편으로, 조선의 구어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대문 근방 봄날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흙영』의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다.

지름길로 남성(南城)에 올라 봄기운을 보니 바야흐로 잔디에 속잎 돋는 때다. 참으로 봄은 푸르고 햇빛은 환하다. —1786.2.26⁷³⁾

여, 이윽한 후, 머흘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앓음새 가리어 양지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72) “瀾形不一, 或銀片大如掌閃閃而過, 或散作水螢稀映忽忽, 或細皺若綺縠, 或翻圓如盤盂, 平澗回直, 各具其態, 且池水極清, 蛙龜寂響, 今日觀瀾, 始甚適意也.”(1784. 윤3.25/5-198)

73) 從徑路上南城, 觀春意, 是莎生裡葉之時也. 眞春靑日白.(1786.2.26/6-165)

여기서 봄의 정취를 표현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속잎’이다. 속잎은 ‘풀이 나 나무의 우듬지 속에서 새로 돋아나는 잎’을 뜻하는 고유어로, 박목월(朴木月, 1916~1978)의 시 「청노루」의 한 구절인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 두 굽이”에서 흡사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속잎’의 원문에 해당하는 단어는 ‘裯葉’인데, 이는 여타의 용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대체로 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어(造語)로 짐작된다. 이와 비교할 만한 예가 박지원의 『광문자전』(廣文者傳)에서 광문의 볼품없는 용모를 형용하기 위해 나온 ‘羊髮’이라는 단어이다.⁷⁴⁾ 이 역시 별도의 용례가 발견되지 않으나, 고수머리를 뜻하는 고유어 “양머리”의 번역어로 여겨진다. 요컨대 ‘속잎’이나 ‘양머리’의 경우 조어(造語)를 통해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었지만 ‘머흠머흠’은 그것이 불가능하여 한글로 남게 된 예에 해당한다. ‘머흠머흠’은 끝내 한문으로 번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황에 쫓겨 미처 번역하지 못한 앞서의 ‘보송보송’이나 ‘트림’, 그리고 정조의 ‘뒤죽박죽’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한글 단어이며, 이와 같은 한글 단어의 사용에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과 더불어 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흙영』은 한문으로 기록된 일기로서, 그 가운데 약간의 한글이 혼용되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 한글을 대상화하여 인용하기도 했고,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한글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전체 가운데 차지한 분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문 글쓰기에 균열을 내며 솟아오른 몇 개의 한글 단어는, 유만주의 문자생활 저변에 존재하며 수면으로 떠오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어의 거대한 흐름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문자로서 한글이 편만해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미성 충만한 문인으로서 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였던 유만주의 언어적 자의식이 발현된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74) 해당 단어는 『연암집』 권8 「광문자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遂入座, 自坐上坐. 文雖弊衣袴, 舉止無前, 意自得也. 毗膿而移, 陽醉噫, 羊髮北髻, 一座愕然, 瞬文欲敲之, 文益前坐, 拊膝度曲, 鼻吟高低, 心卽起更衣, 爲文鈞舞, 一座盡歡, 更結友而去.”

5. 결론

유만주가 한글 사용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은 우선 그가 한글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계층인 여성의 언어 생활에 자주 노출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앞서 18세기 조선의 사대부가 여성이 향유했던 문자문화를 한 짚에 걸쳐 다루어 보았는데, 이러한 필자의 시도는 대부분 『흠영』에 기록된바 유만주의 직접적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달리 말하자면 기계 유씨나 안동 김씨 등 유만주의 질녀들이 한글로 된 책들을 읽고 있는 자리에 언제나 그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유만주의 존재가 어른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만주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어쩌서 그는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가 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답은, 유만주가 듣고 있던 연행록이 실은 그의 관심 장르이기도 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연행록은 여행한 경험을 적은 것으로, 특히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외국 의 문물을 접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그런데 사대부가 여성들이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여행기를 읽고 싶어 한 것은 아마도 새로운 문물과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 조선의 여성이라는 국속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등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한다. 기계 유씨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양을 체득하며 자라났지만 아들인 추사 김정희에게 물려진 것으로 짐작되는 그의 재능을 펼칠 기회라곤 아름다운 한글 글씨로 편지를 쓰는 일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편지조차 남기지 못한 안동 김씨의 경우 한글로 된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시간 외에는 가난한 양반집 딸로서 생계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을 터이다. 이 두 젊은 여성은 18세기 조선이라는 시공에서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이들에게 여행의 기록인 연행록을 읽는다는 것은 우호적이지 못한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계를 꿈꾸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이 읽는 한글 연행록을 듣고 있는 유만주 역시 그 질녀들과 통하는 바가 있다. 그는 『노가재연행록』(老稼齋燕行錄)이나 『열하일기』(熱河日記) 같은 한문으로 된 연기(燕記)를 주의 깊게 읽고, 연행(燕行)을 다녀온 사람

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등 중국 여행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데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열의는 직분 없이 주변부에 존재하는 남성 사대부로서 가망 없어 보이는 조선 사회에 대해 느끼는 환멸과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연기(燕記)를 읽은 이후로,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시골 마을과 무덤들이 몹시도 쓸쓸하고 초라하여 유독 참고 볼 수가 없다”⁷⁵⁾고 한 적이 있다. 중국이라는 타자에 대한 지식이 조선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일깨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를 환멸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환멸이 다른 세계에 대한 열망과 이어져 다시 연행록을 읽고 듣게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행록을 읽고 듣는 주변부의 남성 사대부 유만주의 내면은 한글 연행록을 읽는 조선 사대부 여성의 내면과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결국 한글 사용자로서 유만주의 특별한 위치는 주변부에 속한 사대부로서 유사하게 주변적 처지에 있었던 여성의 언어를 탐구한 데 따른 것이며 그것이 한글에 대한 감각과 자의식을 일깨운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75) ○自閱燕記以後, 歷見所過村閭墳冢, 極意蕭條寒儉, 殊不耐看。(1784.윤3.18/5-194)

참고문헌

1. 자료

- 김정희, 이동국 편, 『추사 한글 편지』, 유일출판사, 2004.
 박목월 외, 『청록집』, 을유문화사, 2006.
 박지원, 『연암집』(燕岩集), 박영철 본, 1932.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역, 『국역 연암집』, 민족문화추진회, 2005.
 박지원, 김혈조 역, 『열하일기』, 돌베개, 2009.
 원중거, 김경숙 역,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유만주, 『흙영』(欽英),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7.
 윤치호, 송병기 외 역, 『윤치호 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정조(正祖), 장유승 외 역,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정지용, 『정지용 전집』, 민음사, 2005.
 홍대용, 김태준 외 역,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홍대용, 정훈식 역, 『을병연행록』, 경진출판사, 2012.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황윤석, 『이재난고』(頤齋亂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연행록선집 보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2. 단행본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유홍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이경하, 『18세기 여성 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하영휘 외, 『옛편지 낱말사전: 선인들의 간찰 읽기』, 돌베개, 2011.
 한국 한글서예연구회, 『조선시대 문인들과 한글서예』, 다운샘, 2006.

3. 논문

- 박희병, 『『흙영』의 성격과 내용』, 『흙영』1,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5~41면.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9~86면.

- 이경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217~241면.
-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다시 보는 고소설사』, 보고사, 2010, 244~274면.
- 정승혜, 「조선통사가 남긴 대마도의 한글편지에 대하여」,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2012, 219~250면.

One Consideration about the Using of Hangul : the Case of Tongwon Yu Manju

Kim, Hara

Yu Manju, a gentry man living in Seoul of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had been continued the character(especially Hangul) mediated communication with women within his family. And he recorded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in his diary *Haemyoung*. This records show that Hangul writing of women was useful means of gender communication within the gentry.

Yu Manju wrote down the reading scene of his female relatives. They were reading aloud various novels and travelogues written in Hangul . In this scene, we can find the typical character culture of the gentry women in 18th century Seoul. Yu Manju exchanged correspondence with his two niece of contrasting economic situation and gave each of them papers, writing brushes and ink sticks equally. This means that the female gentry were reading and writing in everyday life regardless of the rich and the poor.

The main using character of the gentry man of 18th century Choseon including Yu Manju' is Chinese character. So he wrote a diary in Chinese character. But he frequently communicated with women, the main users of Hangul. This was a background of his sporadic writing in Hangul. He unconsciously used Hangul in writing about the illness of his beloved son. Both of an exquisite user of native language and aesthetic writer, he translated into his spoken language into the written language Sino-Korean carefully. In this process, he found the impossibility of the translation. This is the reason why some Hangul words of aesthetic and emotional implications like "meoheulmeoheul머흠머흠" remain in his Chinese handwritten diary.

Keywords : Yu Manju, *Haemyoung*, Hangul, the gentry, gentry women,

communication, translation

접수일자: 2012. 8. 31

심사기간: 2012. 8. 31~2012. 11. 20

게재결정: 2012. 11. 20